

95.
3.28

주부 75% “자녀 과외시킨다”...한자녀 과외비 13만1천원

주부 75%가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있으며, 한 자녀당 평균 과외비용은 13만1천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일제당 사외보 <생활속의 이야기>가 최근 전국 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과외실태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27일 이 조사결과 과외 형태는 사설 학원이 5백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험지 및 교재가 4백6명,

개인지도가 99명, 그룹지도가 83명 차례였다. 과외 종류로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 교육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어(33.7%) 학습보충(30.2%) 웅변·속셈(10.9%) 미술(18.5%) 영아교육(15%) 체육(12%) 컴퓨터(7.6%) 글짓기(4.9%) 등으로 평균 1.9가지의 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외를 하는 자녀들의 평균 수

업료는 13만1천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 유아원을 다니는 만5살 경우 평균 10만5천원을, 초등학교 1학년은 9만5천5백원, 중학교 1학년은 14만1천원, 고등학교 1학년은 18만5천원을 쓰고 있었다. 조사대상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백65만2천원으로 두자녀가 있는 경우를 감안할 때 평균 과외비로 수입의 15.8%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기자